

1. 1인 가구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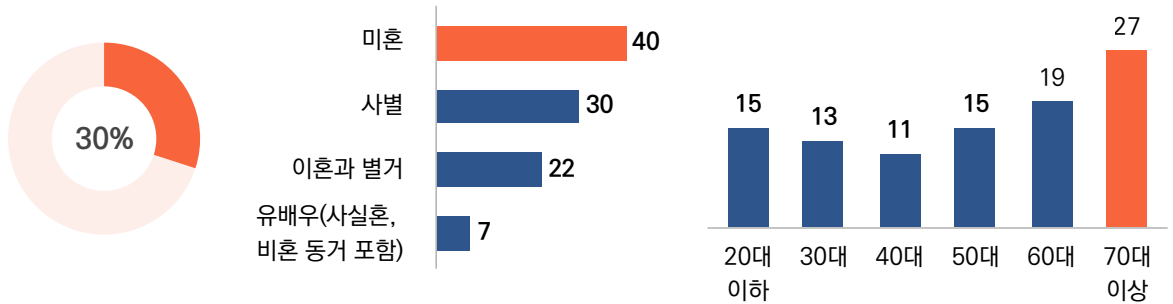
1



1인 가구의 46%,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!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'제4차 가족실태조사' 결과(5월 27일 발표)에 따르면, 2020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구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, 1인 가구 중 22%는 '이혼과 별거'로 나타났다.
- 1인 가구는 젊은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령별로 보면 '50대' 15%, '60대'가 19%, '70세 이상' 27%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났다.
- 특히 60대 이상은 1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(46%)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,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1인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 등 교회 사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1인 가구 비율 [그림] 1인 가구 형태 (%) [그림]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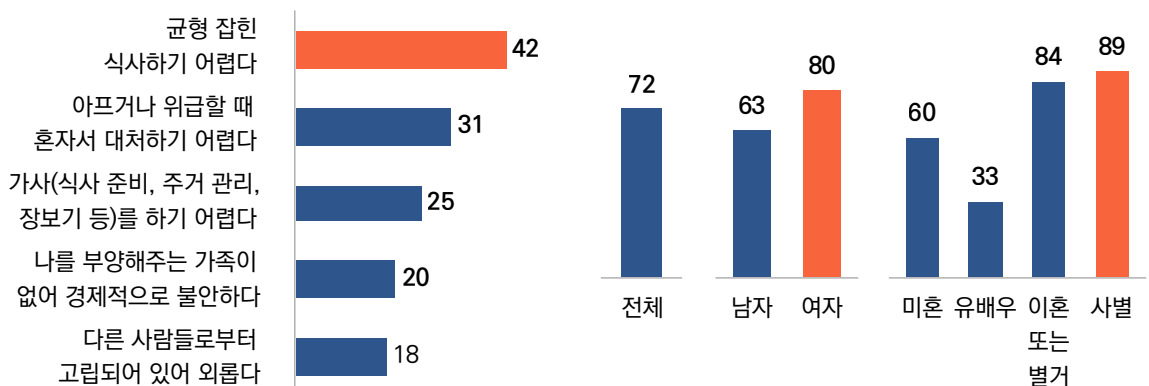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'제4차 가족실태조사', 2021.05.27. (전국 만 12세 이상 가구원 10,977가구, 면접조사, 2020.09.08.-09.18)

● 1인 가구 어려움, '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' 42%

- 1인 가구의 어려움을 몇가지 항목별로 알아보았는데, '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'가 42%로 가장 높았다. 그 다음으로 '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' 31%, '가사(식사 준비, 주거 관리, 장보기 등)를 하기 어렵다' 25% 등으로 응답했다.
- 1인 가구 중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호소한 비율은 18%로 5명 중 1명가량 되었다.
-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률은 72% 였는데,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의향률이 높다.

[그림] 1인 가구 어려움 ('대체로+매우 그렇다' 응답률) (%) [그림] 향후 혼자 살 계획 '있다'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'제4차 가족실태조사', 2021.05.27. (전국 만 12세 이상 가구원 10,977가구, 면접조사, 2020.09.08.-09.18)